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설교

여러분은 시험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거나,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속상해서 괜히 불평을 쏟아낸 적이 있나요? 청소년 시기는 작은 일에도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전쟁과 광야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요. 하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늦뱀을 세우셔서,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회개로 바뀌었고, 원망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을 때,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우물아 솟아나라!” 노래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뻐했습니다. 불평의 백성이 찬양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만, 감사와 찬양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힘들고 막막할 때 ‘왜 나만…’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샘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불평에서 찬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불평 대신 감사,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작고 약한 내 모습 다 같이

말씀봉독 민수기 21:1~20절 다 같이

설교 불평에서 찬양으로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 찬양 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에서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삶에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 변화하게 되었나요?
2. 나는 최근에 어떤 일로 불평했나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